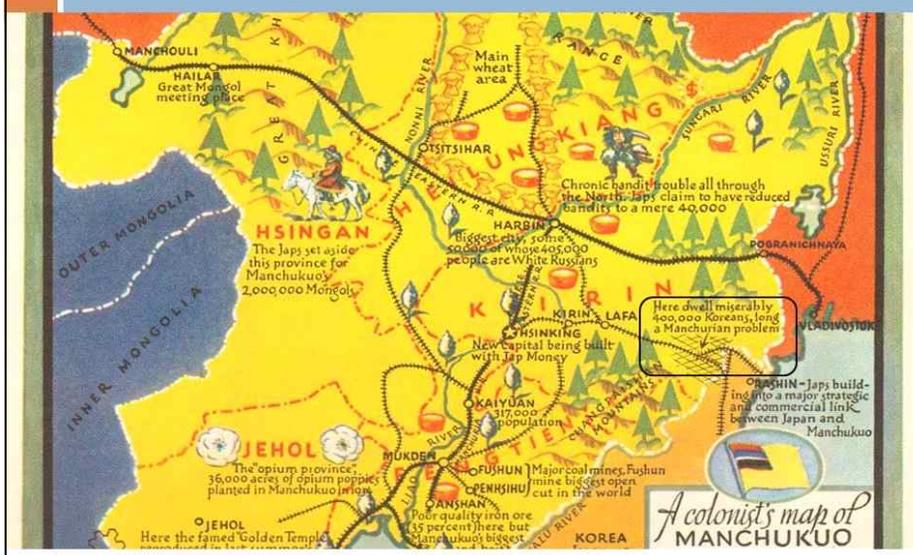


중국 조선족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 해방
 이후부터 문화대혁명까지 (1945-
 1976)

제롬 드 위트

서울 투빙게대학교 한국학과

Manchukuo, Modernity and the Korean
 People 만주국, 근대성과 조선인



Imagining the National in Manchukuo Literature

만주국 문학에서의 국가 상상



- 베네딕트 앤더슨 (Benedict Anderson)에 따르면, 근대 민족국가란 “상상의 정치 공동체이며, 본질적으로 제한적이고 조건적” 이라고 상상하고 있다. 그 의미는 이러한 상상의 과정에서 개인은 권리와 의무, 인증, 종교, 민족 또는 계급의 제한을 받지 않는 더 큰 국가의 시민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국가적 상상인 사회가 제공하는 자원을 모두가 동등하게 누릴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국가 조건에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약속한다. 이런 상상 속의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은 20세기 전반 동아시아의 지식인들이 사용한 청 사진이었다.
- 이야기 속 등장인물들은 농촌 통해 그리고 상상된 국가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지역 환경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다.

Korean writers imagining the Manchukuo nation

조선 문인들의 만주국 상상

- 안소길 (1911—1977)의 1944년 소설 **북방보** 에서 주인공 만주국에서 사는 것이 조선 농부의 운명이라고 밝힌 것은 그의 농부의 열이 아니다.
- 이 농부의 노는 조선 농부들이 그동안 대를 받고 만주국의 참여 정치 체제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구한 동시에, 상상 속의 만주국에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노릇을 통하여 변화시킴으로써 의미를 부여한다. 조선 문인들에 의해 창조된 새로운 종류의 노동력이 어떻게 조선인들의 사회적 지위를 변화되고 그들이 국가의 지을 수 있는 분야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에서, 정치적 존재성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서 지역 환경의 활용하는 목적을 제공한다. 따라서 그들은 조선 농부들의 손에 달려 있는 지역 환경의 변혁을 성공적인 상상의 만주국 정치성을 창조하는 유일한 진정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Who represents the nation?

누가 국가를 대표하는가?

- 이보 제국주의자들이 만주국은 장춘과 같은 도시를 만주국 평등주의 유토피아 도시로 홍보했다.
- 조선 문인들이 농촌이 국가의 생산 중심지이기에 그 정당성은 농촌에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이에 반대하였다.
- 만주국에서 조선인의 정치적 주체성을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



The Urban vs. The Local

도시 vs. 농촌

- 조선 문인 김창걸(1911 ~ 1991)은 『만선일보』 (1940.2.16)에 실린
- 「재만조선문학과 작가의 정열」에서 썼듯이 자본주의 체제에 의한 파괴와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격차 확대가 그 당시 문화 텍스트에서도 벌어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 “재만조선계 유일의 지도지이며 문화건설의 온상인 『만선일보』의 학예면에 러브신이 나타나면 칩삼키나 도시비미츠이나 농부의 생활 또는 인간생활의 암흑면이 나올 때에는 뿌리쳐버리는 것은 상례이거니와 도시상인들은 경제면에만 관심을 갖고 농촌에서는 이 시문의 존재조차도 모르는 실정예” (김창걸은) 실마를 감치 못하고 있다.

1949-1964: The Cultural Creation of the Korean Ethnic
Minority in China

1949-1964: 중국 조선족의 문화 창조



Post 1949: Reorienting Individuality to Serve the Collective
Nation

1949년 이후 집단 국가에 헌신하기 위한 개성의 재정량

- “团结就是力量 (단결은 곧 힘이다)” (중국 초기 선전 구호)
- 개성을 박탈하고 집단의 의지를 따르게 하는 과정. 이 경우 관점의 재정량은 개인이 국가의 상상된 집단 공동체를 따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 이는 1949-1956 시기 활동한 안족과 조선족 문인들의 작품에서 모두 볼 수 있으며, 특히 ‘조선족 문학의 개척자이자 대부 (大父)’ 김창걸 (1911-1991)의 작품에서 두드러진다.



The Creation of a Unique Korean-Chinese Identity

조선족 고유의 정체성 창조

- 김창걸 작가는 새로 수립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새로운 마음』 (1950) 이라는 단편소설을 최초로 출간한 작가였다.
- 조선족 작가들에게도 이 작품은 새 중국이 창건된 무척 중요한 계기에 관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조선족 독자 취미에 따르면, 이는 "조선족 자신을 땅의 소유자로 묘사하고 그 연변 땅을 자신의 토산으로 개척함으로써 한반도에서 분단된 조선족 고유의 정체성을 창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고 하였다.



- 이런 고유한 정체성은 리근전 (1928-1998)의 단편소설 『박창건 할아버지』 (1955)에서도 나타난다.

“1954년 8월 16일에 있는 일이다. 정동준은 조선전선에서 보내온 편지를 받았다. (...) 지금 친척인 태영촌사람들을 위하여, 조국인민들을 위하여 영예롭게 자기의 목숨을 바쳐다.”

“할아버지는 미국놈들 본 일이라고 없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그 강도놈들의 하늘에 사무친 죄행은 알고있었다. 할아버지의 아들을 빼앗아 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아들딸들을 빼앗아오려 하며 중국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파괴하려는 미국강도놈들의 낯짝이 그의 눈앞에서 어른거렸다.”

“우리의 갈 길을 어느 날이든지 막지는 못할거지요.”

- 이 시기 조선족 작품에서는 그들의 민족 (반도에서 유래한 것)과 국가적 유대 (이 지역에 살고있으므로 정치적, 지리적으로 중국의 일부)의 혼합을 보여준다.

Critique of the Nationalist Project

민족주의 프로젝트 비판

식민 체제의 가장스런 붕괴는 또한 새 중국의 지도자들이 일제와 비슷한 정책과 담론을 사용하여 그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에게 노동을 하도록 설득하고, 지도자들의 새로운 노력과 정책은 진정한 "새로운" 것이기에 대한 모호함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이러한 모호성은 1955년까지 조선족으로 지칭된 중국 공민으로서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 방해되는 중요한 장애물이 되었다. 공동체의 공동된 기억, 공동된 기억을 형성하고, 만주국 붕괴 이후 조선족 민들이 지역사회의 내 남아있던 반감과 모호함을 애기 위해 지역 환경에 대한 담론을 사용한 것이 바로 이러한 측면이다.

새로운 중국의 정당성은 근대화와 대한 약속에 기초했지만 수사학적으로는 일본의 식민 통치와 너무 유사하게 들렸다.

- "조선족, 우리 언제 돌아올까요? 밥을 굶고 거둬들이고 마다질까지 할수 있을까? 우리 이 세대에 들수 있을까?"
- "이거 언, 몇 천 년전부터 쓰던 도리'개' 가지고 강임오만 하자니 맨만 짜 지고, 에이 참"
- 동포들은 감격만 나머지 부러우듯이 들렘으로써 말했다.
- "오늘 곧 될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먼것도 아니고, 거저 우리에게 달려지!"

□ 김창길, 『새로운 마음』 (1950)

The Reemergence of the Colonial Past

식민지 과거의 재등장

- 그리고 더우기 과거의 창극이란 인민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을 더욱 더 깊어지게 빠지도록 지도한 변리가 붙은 것으로서 우리들을 더욱 심하게 착취받게 했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 따라서 오늘날의 부업이야말로 식민주의사외가 아니고서는 있을수 없다. 과거 왜놈들의 소위 '부업장려'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기 쉽게 똑똑이 레를 들면서 이야기했다.

□ 김창길, 『새로운 마음』 (1950)



Internal Enemies and the Critique of the Individual 내부의 적과 개인주의에 대한 비판

- '집단 노동'이라는 용어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개인의 필요와 집단의 필요 간의 강한 갈등 중심으로 일정한 이념적 개인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소구역」의 조이근 남자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이기적으로 일해 왔다는 것을 서서히 인정하는 것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멸망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부분 이야기를 겪어주고, 서술적 기조는 조서하는 것은 집단 노동 체제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이기주의적 요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견의 「새지」(1951)에서 지조동이 비난받는 것을 본다. 김창경의 「마을의 승리」(1951)에서 봉우만 소작농들과 분적적인 존재들은 새로운 마을 등에서 분자가 되기를 기쁘고 조사조 소작농들이 마땅하다. 이러한 대립자들은 비특이하고 노력의 이윤뿐만 아니라 이기적이고 냉정하며 그들로 묘사된다.

"조작동은 요새는 바뀌며 지아가 가장 큰이이라는데 여기야 어디 바뀌며 자가 이겠소?"

며죽이는 아차만에 거지 저쪽 반머리에 미쳐서 이음 나실꺼려다.

"그러다그 아조 마음 눈음사야 이겠소? 아직 우리네에 잘 보이지 않을 뿐 이지 없다그 장담할 수가 없지!"

- 김창경, 「마을의 승리」, (1951)

Unforeseen Consequences

예상치 못한 결과

- 자인하고 아이러니하 인명의 끊임 속에서 조서조은 정당한 정체성은 마려하고 그들의 정치적 주체성 다성은 이기어내려는 이야기들이 동시에 조서조 정치인들과 예술가들을 향한 비난의 온상이 되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956년부터 반우파 투쟁을 시작해 점차 더 많은 내부의 '적'들이 계속 '발견'되고 결국 1966년 문화대혁명에 의해 야기된 사회적 참사를 초래했다.



The Preamble to the Cultural Revolution 문화대혁명의 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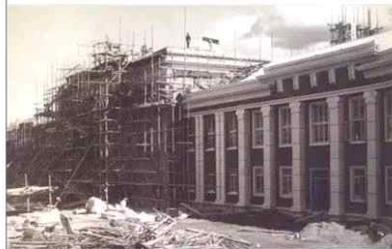
- 1956년 공산권 전역에서의 반공 시위는 중국 지도부에 충격을 주었다.
- 공산주의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지식인들의 **백화제방·백가쟁명 운동** “百花齐放·百家争鸣” 운동 (1956~1957)
- 이 캠페인에 대한 조석조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 자신들의 미종적,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
 - “들이 백화제방·백가쟁명의 방침이 제정된 후 민간인들은 반공 적화하는 사업은 얼마 안배에서도 더욱더 중시되고 있는바 깊은 중언 효과를 얻을 것이 예견된다.”



조선족 지식인들의 백화제방·백가쟁명 “百花齐放·百家争鸣” 운동에 대한 반응 (1956-1957)

- 2연변문예, 장지는 왕건로 방각에서 일군한 바와 같이 역풍 이전 조선문학 글판을 추진하기 위해 민족적으로 돌리는 조선시, 이문인, 2아리랑, 2우로 개정되기도 했다.
- 조석조들은 국가적 용어가 아닌 민족적 용어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말은 물론 민족적 전통과 깊은 연관적 세계 다른 민족문화의 비영영을 융합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절정에 썼다. 그것은 자신은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된 지금, 어떻게 자신은 반지, 고집스러운 민족적용어는 조선인이라지만, 국가적용어는 중국인이라서 때문에 중국의 다른 모든 민족과 함께, 국제적행적은 사회의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그 자체에 무슨까지 양양을 보여준다.
- 자랑스러운 조선민족, “이 민족이나 그러하듯 몇세기 동안 문자의 기록 없이 우리 민족의 고도 문명도 만민들의 모든 생활과 함께 이 민족의 생활속에서 적어져 왔다.”

延吉市工人文化宫, 1959年竣工



‘아리랑’ 창간호 (1957, 1)



친애하는 독자 여러 동무들에게

《아리랑》은 조선부의 애국인 우리 여러 동무들의 애편하에 보냈다.
 《아리랑》은 본지성 실감 삼기로서 조국 문화 화원의 한 열매가 되었다.
 《아리랑》은 중국 공산당의 정칙한 민족 정책의 《보충》을 위해 독자 여러 동무들의 애편, 애가 정성》의 취미한 일로 삼길 아래 탄생하였으니 독자 여러 동무들의 뜨거운 관심과 격려하에 일로 삼길 하리니 우리의 애편을 기대한다.
 《아리랑》은 교두잡이이며 통치적인 문헌 삼기로서 일정한 민족 능력을 가지는 장대한 조국경 관공과 광장 생산 농촌 학교 기타 부대들 조국의 각개 사업 분야의 지성 재민공을 자기의 주요 독자 대상으로 한다. 때문에 《아리랑》은 이같은 장대한 공중적의 발전적 변계를 떠나서는 존재 할 수 없다.
 《아리랑》은 창작상 가장 좋은 방법의 민족인 사회주의 사실주의 창작 원칙에 입각하여 일정한 조국내 각지의 조선족 인민들이 전국 각 형제 민족 인민공과 함께 진행되는 조국 사회주의 건설의 앞길에 민족적 생활모습들을 반영하며 그들을 교육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더 큰 위업에도 참여 하도록 한다.
 《아리랑》은 문학의 신생 희망을 바탕으로 창작 내용을 부단히 확대하는 일을 자기의 중심 과업으로 여기어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태담히 신생희망을 실현 하도록 한다.
 《아리랑》은 방의 《백화만방, 백가정경》의 방침을 전면 집행 하기 위하여 경제적 피세입위를 확대하면서 과학, 문화, 각종 필적, 각종 문학의 예술 작품을 태담히 선택 게재하여 간담공의 독특한 풍격과 특색을 수립하기 위해 정성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동시에 간담공의 원문화, 생활상을 향하여 시가는 견본화 문예적의 작품을 극히 실지 않으며 예술의 독창성을 향상하는 창작상의 민족 조국주의 풍격주의 및 민족 예술에 대한 간담공의 조국반 태도와 견정한 투쟁을 진행한다. 이와 같은 충분한 자유로운 창작상의 자유경쟁에서 《아리랑》은 일찍 적극적인 요소들을 통일하면서 일면 문학으로 하여금 견강의 발전하도록 보장한다. 비록 그것이 예술상에서 소수 혹은 개인의 의견이나 주장일지라도 작품의 총체 경향하 인민을 위하고 사회주의를 위한다면 《아리랑》은 이를 태담히 발표하여 광대한 독자층의 자유 모듬에 맡긴다.
 《아리랑》은 적극적으로 고전 작품을 정리 소개하여 민간문예를 발굴, 정리, 소개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민족을 비롯한 국내 각 형제 민족의 문학성취 및 세계문학의 진화공을 적극 소개 함으로써 일면문학으로 하여금 민족문학의 우량한 전물을 계속 발달하여 민족중흥의 농후한 후추한 사회주의 문학으로 피제하여 조국의 사회주의 문학전선의 위대한 사업에 이바지한다.
 친애하는 독자 여러 동무들!
 《아리랑》의 보다 전진한 성장 발전을 위하여 가장 뜨거운 손길로 그를 시력각으로 보살피 줄 것을 기대하며 용감 투고한 것을 타마 가지 않는다.
 이는 《아리랑》의 독자 여러 동무들로부터 받는 최대의 영광이다.

반우파 투쟁 (1957-1958)

그러한 모태들은 방음들 바껴 우파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반우파 운동).
 1957년까지 모태들은 민족과 소수 민족 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민족 우위주의와 지역 민족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1957년 반우파 운동은 조선족 지식인들을 지역 민족주의자들로 비판하였다.
 1958년의 정몽은 중국 공산당 내부의 세 가지 문제, 즉 관료주의, 파벌주의, 조국주의와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조선족 공동체에 대한 주요 표적은 조선족의 다국적성, 노력 등과, 조선족의 자결권 외교 등 중국에 예외론자였다. 또 다른 비판은 중국 국적 취득을 꺼리는 것, 중국어 배양기를 거부하는 것, 자치 구역의 교외 행정적 지위에 대안 불만, 민족 관리를 자치 구역의 행정적 임무 반대하는 것 등이었다.
 그 결과 1958년 3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900명의 관리들이 강제 노동으로 공장 노동에 보내졌다.



반혁명 음모 분자의 말로는 이렇다

너는 우파다
한 남극

반동 작품-《소나기》

최 정연의 반동적 동기

독소가 가득한 소설

김학철은 이 시기를 어떻게 겪어나?

- 작가협회도 믿을 수 없습니다. 작가들은 때가 올 때까지는 장마하노라고 농촌에 가서 나무일을 걸어보지요. 또 시장에서는 나무껍질을 팔아줍니다. 그걸 사서 먹어지요. 이런 상태였는데도 라지오나 시뮬은 위대하다, 위대하다고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 반오파투쟁때 일어납니다. 내 작품에 《수리개는 맹금(猛禽)이다》라는 어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수리개는 사회주의를 가리키는 거라고 하면서 나를 비판하였습니다. 또 이게 다른 사람의 작품입니다만 그 사람이 쓴 작품에 《대학을 졸업하였을 때 나는 청운(靑雲)의 꿈을 품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청운이란 뭐냐, 왜 홍운(紅雲)이라 하지 않고 청운이라 했는가》, 《푸른 청운 국민당은 의미하는 거이다》 이렇게 꾸며 그 작가를 비난하고 투쟁하였습니다.

김학철, 『20세기의 신화』 (1996)

The Cultural Revolution (1966-1976) 문화대혁명 (1966-1976)

- 문화대혁명이 조선족 사회에 미친 영향은 참혹했다. 조선인의 정체성은 과거 일본의 식민통치와 중국의 민족주의(대만족주의)가 조선족의 민족성을 분열화하고 북한에 대한 배타적 충성을 전제하면서 고정되었다. 역사적 특수성을 배제한 조선인의 과거와 현재는 식민지 정치와 반식민지의 정치적, 경제적 과정을 박탈당했다. 그리고 조선인들은 중국 내전에서 공산주의 편에 가담했지만 중국 혁명의 위협적인 존재로 묘사되었다.
- 문화대혁명이 절정에 이르자 조선인의 자존권마저 위협받았다. 조선족은 혁명에 반하여 봉건적 잔재, 국민당 지하분자, 식민지 변절자(친일파), 자본가(지주), 소련과 북한의 간첩 등으로 비난 받았다.
- 조선족은 문화대혁명을 연변의 일상생활에서 편지증과 외설적인 풍경을 조장한 민족내 학살, 조선족 간의 투쟁으로 기억한다.

Effects on Korean-Chinese Culture

조선족 문화에 미치는 영향



- 문화대혁명은 바오파등재보다 더욱 호시한 재난이였습니다. 그야말로 내란상태였습니다. (김학철)
- 시인 김철, 소설가 김학철, 김창걸 등 저명한 문이들은 모두 숙청 당했다.
- 난야무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금지되었다: “청나라 병사의 모자를 쓰고 머리를 흐트러뜨린 사치 사회주의와 당의 력도에 대하여 의심하는 거 같다.” (정판용)

문화대혁명 이후: 상흔문학



- 문화대혁명 이전 과거의 잘못을 논할 수 있는 공간이 조여졌다. 조선족 문화 분야의 지식자들은 민족적 정체성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일관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 10년간의 내분을 바로잡기 위해 죽각 나섰었다.
- 청년 세대는 이른바 ‘지식청년’ 세대로서 시대에 응을 다했다는 배시감을 심하게 느끼고 있고, 그만큼 기성세대의 가치와 관념에 대한 적의와 부정, 그리고 현실에 대한 반역의식과 변역시도가 강력한 성향을 내보인다.
- 동종이라는 끈끈한 관계는 타나는 사회적 지위의 상승을 앞세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가족 구성원들은 국가라는 명분아래 그들의 ‘정의’를 내세우면서 자신에 대한 불만을 피하기 위해 서로를 공격했다.
- 상흔문학 인기가 많았다. “상흔문학은 좋은 작품이 나왔습니다. 《적지》 잡지는 양만부나 팔려줍니다. 조선족의 인구가 170만밖에 되지 않는데 양만부가 팔린 것을 보면 얼마나 인기가 많은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김학철)

Korean-Chinese “Scar Literature”

조선족의 대표적 상흔문학

- 장막극 박응조, 홍성도, 『눈속에 핀 꽃』 (1980)
- 단편소설 박천수, 『연호이 된 나』 (1979)
- 단편소설 정세봉, 『하고싶던 말』 (1980)
- 단편소설 임림호, 『투사의 슬픔』 (1980)
- 단편소설 리연길, 『백성의 마음』 (1981)
- 단편소설 류연무, 『비단이불』 (1982)



우광훈, 『외로운 무덤』 (1979)

- 이 이야기는 문화대혁명 당시 헤어진 한족 소녀와 조선족 소년의 사랑을 그린다. 결말에서 한족 소녀는 자신의 정치적 불충성에 분노한 아버지의 손에 죽고, 조선족 소년은 어머니에게 그 밤을 당해 3년을 감옥에서 지내게 된다.
- 결국 이야기는 문화대혁명의 트라우마를 4인방의 탓으로 돌리며 "이애" 라는 공식적인 설명에 따른 것이다.
- 이 이야기는 조선족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시고한 반면 한족 아버지는 자신의 딸을 죽여달라는 설정으로 비극을 일으킨 민족 간의 투쟁도 다룬고 있다.



농부작가 박서석



- 1945년 김림성 집안현 유림향 출생
- 2021년 10월 타계
- 혁명가 출신이지만 문화대혁명 당시 정부에 의해 '부농'(富農)으로 치부돼 오명을 썼다.
- 1980년 데뷔한 그는 "조선족 사회에 만연해던 광기와 무정부 상태를 잊이지 않도록 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밝혔다.

박서석 『피와 운명』 (1985)

독자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어둑가요>를 볼까? 무슨 <결심은 내리고 외생할 준비를 하며>라는 것이 아니면 <누가 우리의 적이고 누가 우리의 동지인가?>하는 노래들이었다. 색다른 노래라야 <언뜻들 낯을 갈며...>따위들이다. 다른 노래는 모두 금지했으니 볼 것이 없었다. 약문시이고 또 오락장소였지만 웃음이란 없고 오직까 살벌한 분위기였다. 누군가 우리 민요 <도라지>를 불러주는데 그나마 가사를 고쳐서 백도라지를 <홍도라지>라고 불렀다. 그래서 처음으로 웃음이 터졌다. 부마이가 큰 일이나 난 것처럼 제지시키며 엄숙하게 경고했다.

<중외들 합시다. 날은 노래를 불러서 안됩니다.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계급투쟁을 절대 잊어서 안됩니다.>

민요를 부르던 자가 볼복했다.

<그러기 내가 홍도라지라고 하지 않았나? 붉은건 혁명은 상징만 다면서? 시내의 중집담벼도 모두 붉은 짐을 썼던지.>

<붉은 도라지가 어디 있어?>

<왜 없어? 색짐을 막면 되지.>



The Cause of the Cultural Revolution (according to Pak Seonseok) 문화대혁명의 원인 (박선석에 따르면)

- 공공 당 다른 정치 지도자 들이 시 미 들 을 공 격 하 고 통 제 하 는 데 남 용 할 수 이 는 무 의 미 하 고 공 허 한 구 호 를 만 들 어 다.
- 2015년에 쓴 중국 소설가 Hao Qun 郝群의 관찰과 유사

“공산당이 우리 말을 약 잡아 보거든 대중의 다른 편을 펴 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이었다. 문화대혁명은 이걸 그대로 모고 가다. 지적인 토론과 이성적인 논의는 창밖으로 던져졌다. 이러 분위기에서 많은 지적인 의미를 이룬다. 그러 다음 다음 다시 말을 이용하여 난독화하고 거짓말을 할 수 있다.”

傾聽해 주셔서 感謝합니다.



연변 영길행 상공에서